



글로벌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관련 설문조사

이혜은 연구원

글로벌 보험회사들은 전반적으로 투자환경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2018년 투자기회가 전년 대비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따라서 더 많은 보험사가 투자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확대하기보다는 줄이는 보수적인 투자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향후 글로벌 보험회사들은 사모펀드, 인프라채권, 상업용 모기지 대출 등 유동성은 적지만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임

- 글로벌 보험회사들은 전반적으로 투자환경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2018년 투자기회가 전년 대비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¹⁾
 - 보험회사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큰 영향을 미칠 2018년 거시경제 리스크로는 미국의 경기침체가 제기되었으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8%의 보험회사만이 투자여건이 개선된다고 응답한 반면, 50%의 보험회사는 악화될 것이라고 답함
 - 이는 2015년을 제외한 지금까지의 설문조사 중에서 가장 비관적인 수준임
- 이번 조사에서 가장 특징적인 사항은 많은 보험사가 투자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확대하기보다는 줄이는 보수적인 투자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특히 아메리카 지역의 보험회사는 리스크를 줄이려는 디리스크(de-risk) 전략인 반면, 아시아 지역의 보험회사는 리스크를 확대하려고 함
 - 글로벌 보험회사들은 주식리스크와 신용리스크는 줄이고, 듀레이션은 축소시키고 유동성은 늘릴

1)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2018, 4), "Insurance Survey: Foggier as We Climb"; 글로벌 보험회사의 CIO와 CFO를 대상으로 거시경제 리스크, 투자 리스크, 향후 투자 대상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2012년 이후 매년 발표하고,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변화를 분석함. 2018년 설문조사에는 자산 10조 달러 이상인 보험회사로 168개의 아메리카 지역, 77개의 유럽·중동 지역, 55개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보험회사 등 총 300개의 보험회사(생명보험, 손해보험, 건강보험, 재보험 등 포함)들이 참여함

예정으로 이는 작년 조사와 반대의 결과임

- 반면 아시아 지역의 보험회사는 신용리스크와 듀레이션을 확대할 계획인데, 이는 아시아 보험회사가 듀레이션이 길고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미국의 신용자산에 대한 투자수요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글로벌 보험회사의 30%가 금리상승이 포트폴리오의 가장 큰 투자 리스크라고 답했는데, 특히 아시아의 보험회사들이 이를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음
 - 금리상승 이외의 투자 리스크로 아메리카 지역 보험회사는 신용상태 악화라고 답했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보험회사는 저수익률도 우려사항이라고 답함

■ 향후 글로벌 보험회사들은 사모펀드, 인프라채권, 상업용 모기지 대출 등 유동성은 적지만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임

- 사모펀드와 주식 등은 2018년 높은 수익률이 예상되는 반면, 국공채, 고수익채권은 수익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함
 - 지속되는 저금리로 국채 투자수익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보험회사들이 사모펀드, 인프라채권, 상업용 모기지 대출 등에 관심을 갖기 시작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메리카 지역의 보험회사들은 사모펀드, 상업용 모기지 대출, 대출채권담보부 증권²⁾ 등에, 유럽 지역의 보험회사들은 유럽 주식과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 확대할 계획이며, 아시아 지역의 보험회사들은 사모펀드 이외에도 미국, 유럽의 투자등급 회사채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최근 이슈인 가상화폐에 대해 65%의 보험회사들은 보험회사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포함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됨 **kiri**

2) 대출채권담보부 증권은 은행의 대출채권 풀(Pool)을 구성한 뒤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하고, 자산유동화전문회사는 대출채권 풀을 담보로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임